본선같은 예선전 '불꽃 경쟁'

전완준 재선 도전…임호경씨 등 도전장

'행정경험' 내세운 前 공무원들도 후보군

■군수 입지자

■화순군수 입지자 〈가나다 순〉

구충곤(52)	배동기(54)	이윤모(56)	임호경(58)	임호환(65)	전완준(51)
민주당	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민주당	민주당
전남도의원	전 화순부군수	전 전남도교육원장	전 화순군수	전 농업기반공사 전남본부장	화순군수

6·2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무소속 대결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유력 후보들이 민주당에 대거 몰려 있어 본선 같은 예선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에선 재선을 노리는 전완준 군수, 구충곤 전남도의원, 배동기 전 화순부군수, 임호환 전 농업기반공사 전남본부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무소속으로는 복귀를 장담하는 임호경 전 군수와 이윤모 전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장이 출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건설회사 대표 출신인 전 군수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화순군 대표 브랜드인 '테라피(Therapy) 화순'을 만들어낸 군정 성과를 내세우며 재선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잘사는 화순 만들기 프로젝트인 '비전 1030' 사업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최근 현장방문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 군수는 "그동안 펼쳐놓은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화순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 잠재력을 활용해 새로운 융성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군수도 그동안 소극적인 행보에서 최근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임 전 군수는 그동안 기존 조직을 중심으로 물 밑에서 세 불리기에 집중하는 등 '와신상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역민들을 상대로 '현재 군정에 만족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공식 출마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임 전 군수의 주변에서는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는 "한번 더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지만, 좀 더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설 이전에 최종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충곤 전남도의회 의원도 현재 출마를 검토 중이다. 일부 지지층들이 군수 출마를 권유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론도 좋다는 반응이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구 도의원은 중앙당 '네티즌 특별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당 내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튼튼한 지지기반이 있다는 강점이 있어 공천 경쟁에 뛰어들 경우 민주당 공천 판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 도의원은 "지역민들의 여론과 바람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설 전후에서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배동기 전 화순부군수도 민주당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23년의 공직경험과 인맥, 대학 강의 경험을 활용에 지역발전에 봉사하겠다며 경선 채비를 하고 있다. 그는 퇴직 후 렌트카 회사를 경영한 경험도 행정에 접목하겠다는 포부다. 배 전 군수는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다 중앙 인맥이 두터운 점을 최대한 활용해 화순발전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호환 전 농업기반공사 전남본부장도 당 안팎에서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도 맡고 있는 그는 본부장 재직 시절 전국 1위 본부 운영사례 등을 내세워 전문 행정력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지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참신하고 능력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무소속으로는 화순 동면 출신인 이윤모 전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장도 뛰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에 앞서 자서전 '청정골의 야생화'출판기념회를 갖기도 했고, 현재는 얼굴 및 이름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4년여의 정년을 앞두고 명퇴를 결심한 것은 그동안 화순군정이 올바르지 못해 지역갈등을 빚어오는 등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면서 "새로운 행정전문가가 나서야 화순도 바뀐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①'형제군수' vs '부부군수' 재격돌

②선거 때마다 후유증 이번에는?

■쟁점&변수

화순군수 선거는 전·현직 군수 집안끼리의 '리턴매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전완준 군수의 형인 전형준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임호경 전 군수의 부인이었던 이영남 군수를 1만여 표 차이로 누르고 42대 군수로 당선됐다. 이 때가 집안끼리의 첫 승부였다.

하지만, 전형준 군수가 3개월 만에 선거법위반으로 낙마했고, 동생이 곧바로 재·보궐선거를 통해 군수직을 승계했다. 앞서 임 전 군수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1년 7개월 만에 군수직을 잃은 뒤 부인 이영남씨가 나서 남편의 뒤를 이었다.

두 가족 모두 2차례에 걸친 선거전으로 선거 노하우는 물론 조직력이 탄탄해 맞붙을 경우 '빅 매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임 전 군수가 지난해 비방의혹을 제기하며 전 군수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양측이 오래전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전 군수는 무혐의 처리를 받았지만, '앙금'은 가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양측은 모두 그동안 닦아 놓은 자신들의 조직을 중심으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등 물밑에서 세 불리기도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군수들의 도중하차가 많은 지역이어서 얼마나 깨끗한 선거가 될지도 관심이다. 지역에서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 주민운동도 시작됐다.

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청렴·도덕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응답했다.

재·보궐 선거 때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패배한 것도 후보들의 진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의 대상이다.

공천에 앞서 경선방식 등에 불만을 품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들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도의원 입지자

'민주 vs 한나라' 2선거구서 격돌

1선거구는 거론 인사 아직 없어

■화순 도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미정	
2	김경남(60·한)	전 군의회 의장
	문안식(43·민)	조선대 겸임교수
	양경수(63·민)	전 축협조합장
	주승현(68·민)	군의회 의장
	홍이식(52·민)	전남도의회 부의장

화순 제1선거구(화순읍·도곡·도암·북·이서면)에서는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반면 제2선거구(능주·춘양·이양·청풍·동면·남면·동복·한천면)는 5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1선거구는 구충곤 현 도의원의 군수 출마 여부가 변수다.

아직까지 구 도의원 이외에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는 인사들은 없지만, 그가 군수 출마로 방향을 선회할 경우 상당한 입지자들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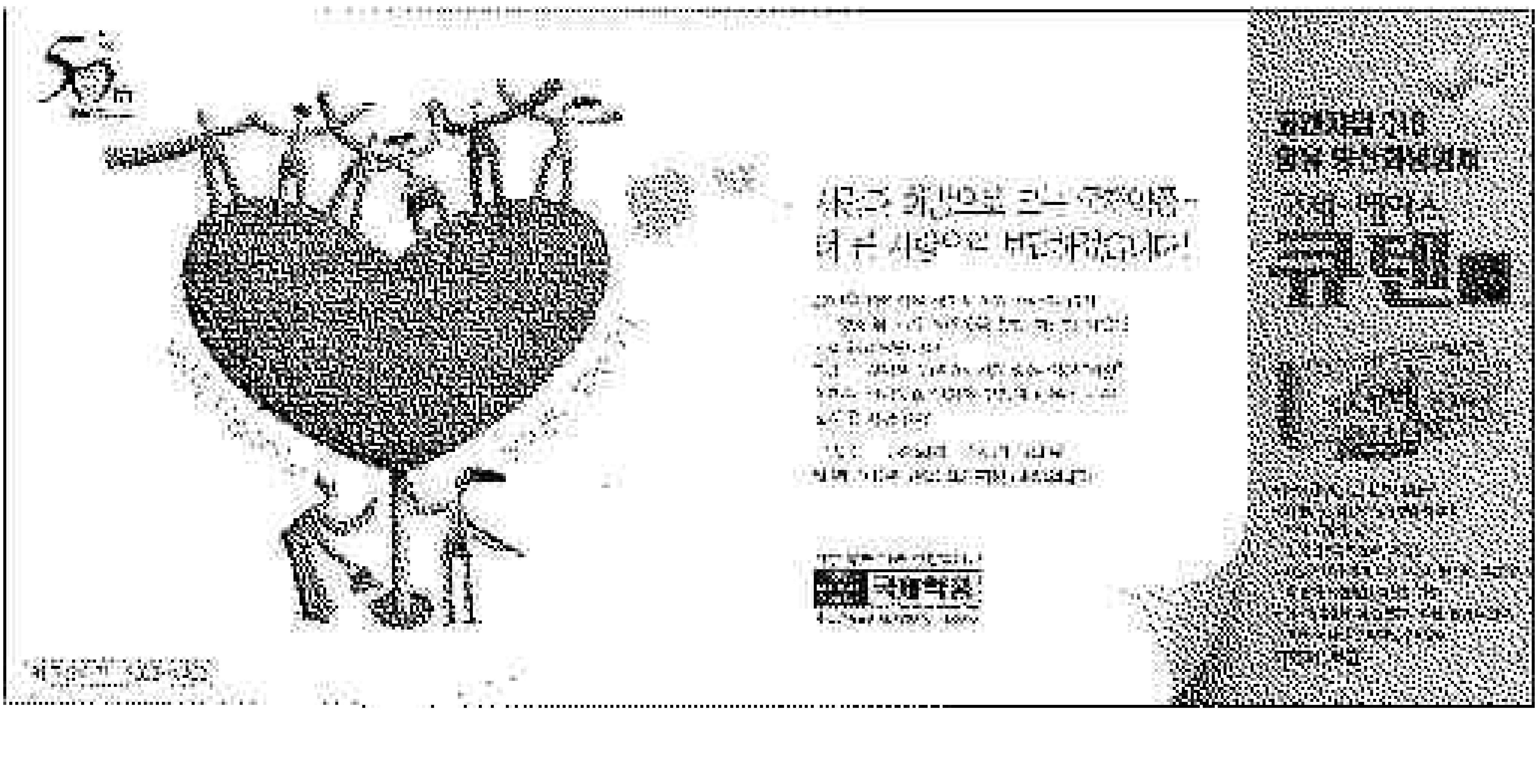
2선거구에서는 재선의 홍이식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버티고 있다. 하지만, 양경수 전 축협조합장, 문안식 조선대 객원교수, 주승현 군의회 의장 등도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어 이들이 홍 의원의 3선을 저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홍 의원은 재선의 관록과 인지도, 대중 친화력이 강점이다. 양 전 조합장도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인지도가 있고 나름대로 조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장도 군의회 의장으로서의 보여준 의정활동에다 꾸준히 쌓아온 지지기반이 상당하다. 문 교수는 참신성과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김경남 전 군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군의원은 일찌감치 공식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2선거구의 본선에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격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전남도민이 함께 만든 공약 전달식 '2010 시민 매니페스토 만들기 전남본부'는 26일 오후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남도민이 함께 만든 '민선 5기 지방선거 10대 어젠다(의제)'를 주요 정당 전남도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앞서 이날 오전 2010 시민 매니페스토 만들기 광주본부도 시 선관위에서 같은 행사를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